

## “4월 임시국회가 진짜 싸움판, 조합원 조직해 막자”

### 민주노총, 개악 저지 강력 대국회 투쟁...고용노동소위 개악안 논의 중단, 여야 개악 공감대 형성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를 개악하려는 국회의 시도를 막아냈다. 하지만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개악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이 4월 3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악 등 쟁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고, 고용노동소위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소위원회에 이어 열기로 한 전체회의도 취소했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와 산하 지역본부 간부와 조합원들은 4월 3일 아침 8시부터 출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온종일 노동법 개악 법안 논의를 중단하려며 투쟁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환노위가 고용노동소위를 시작하자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임원과 간부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엄강민 노조 부위원장,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 등 스물다섯 명을 연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오후 2시부터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김명환 위원장과 산별노조의 임원까지 연행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촛불 정권을 자칭한 저들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썩은 썩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은 대가를 오늘에서야 치르고 있다. 투쟁을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해 후회한다. 간부들부터 각오를 새로이 하고 국회에 맞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국회 고용노동소위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대규모 병력과 철제 방호벽으로 조합원들의 이동을 가로막고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세 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하며 국회 고용노동소위 참관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7시 20분쯤 고용노동소위가 합의 없이 산회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리집회를 연 뒤,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맞춰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결의했다.

국회 고용노동소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

고 문을 닫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에 대해 허용 기간의 차이를 빼고 대체로 법안 처리에 뜻을 모으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악에도 두당이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국회가 4월 중하순 임시국회를 열면 노동법 개악 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3일 오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노동법 개악 법안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3일 결의대회에서 “오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투쟁하는 4월을 예고하고 있다. 여유 부릴 틈이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 다음 싸움에 제대로 맞서야 한다. 금속노조부터 조직하겠다. 다른 산별노조연맹도 함께 준비하자”라고 당부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국회가 노동법을 개악하면 노동법 체계와 노동 3권이 무너져 노조가 있으나 마나 한 현실이 온다. 간부들부터 신발 끈을 제대로 매고 다시 한번 조합원들을 만나 조직해보자”라며 “이미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이익과 생존을 넘어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과 생존을 함께 지키는 민주노총을 만들어보자”라고 호소했다.

# 콜텍지회 부당·정리해고 철회 요구 본사 농성 돌입

임재춘 조합원 단식 22일 넘겨 ... “박영호 사장 버티지 못 할 때까지 몰아붙인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김경봉 조합원과 김정태 지부장 등 조합원 일곱 명이 4월 2일 콜텍 본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 조합원들은 콜텍 본사 3층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며 박영호 사장이 진전된 안을 들고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퇴거를 요구하며 본사 정문과 후문을 막았다.



는 날’ 을 낭송했다. 낭송을 마친 임재춘 조합원은 “박영호가 목숨을 달라면 주겠다. 그리고 이 길거리 투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라며 절박하게 복직을 염원했다.

콜텍 정리해고 철회 투쟁 4444일을 맞은 4월 2일 본사 농성에 들어간 김경봉 조합원은 올해 정년퇴직을 맞이한다.

지난 3월 7일 13년 만에 직접 교섭에 나온 콜텍 박영호 사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와 복직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3월 12일 임재춘 조합원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늙은 노동자의 목숨을 건 단식이 22일을 넘어섰지만, 박영호 사장은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서울지부, 인천지부는 4월 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정리해고 13년,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를 열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장은 대회사에서 “박영호 사장은 시간을 끌며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금속노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박영호 사장이 더는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몰아붙일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이인근 노조 콜텍지회장은 지난 교섭에서 “지난 13년 동안 자신이 더 힘들었다” 라는 박영호 사장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인근 지회장은 “콜텍 정리해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정리해고로 노동자가 거리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며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단식 투쟁 중인 임재춘 조합원은 투쟁사에서 이해인 수녀의 시 ‘내가 니를 위로하

단식 중인 임재춘 조합원은 몸무게 7kg이 빠졌고 건강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노조 콜텍지회와 공동대책위원회는 임재춘 조합원 단식 23일째인 4월 3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들 회원들이 연대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콜텍지회 투쟁을 지지하는 각계각층 대표자들은 콜텍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대 단식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노조 콜텍지회와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3일 16시에 콜텍 본사 앞에서 올해 60살이 되는 김경봉 조합원을 위한 ‘길 위의 환갑잔치’ 를 연다.

##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연대투쟁 시작

재벌 특혜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 “정몽준 위한 국가 기간산업 할값 매각 반드시 막는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차원의 연대투쟁이 시작됐다.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는 4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재벌 매각 저지를 위한 전체 운동 진영의 연대투쟁을 선언한다” 라고 밝혔다. 전국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에 “정몽준 재벌 특혜를 위한 대우조선 매각 중단과 조선업 재편 중단” 을 촉구했다.

전국대책위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노동당, 민주노

동지전국회의,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구속노동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일혁명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대책위는 이후 더 많은 단체가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을 “문재인 정부가 현대중공업 정몽준 일가에게 주는 특혜 그 자체” 라고 규정했다. 전국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로 ▲현중그룹 정씨 일가를 위한 국가 기간산업 할값 매각 ▲현중그룹 3세 승계 사익 추구 국가 보장 ▲대우조선과 현

대중공업 원하청 가짜 업체 노동자 고용 위기 등을 들었다.

전국대책위는 우선 대우조선 실사를 막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 현수막 게시부터 시작해 오는 4월 10일 ‘대우조선해양 특혜매각 인수 저지 영남권 노동자대회’ 등을 벌인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해 5월 31일 현대중공업 입사추출을 저지할 계획이다.

전국대책위는 이와 함께 불공정 밀실 매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